# 만추(晩秋)를 그리워하며

글 _ 이 상 구
영등포 · 이상구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춘하추동(春夏秋冬) 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마치 아열대 지방의 기후처럼 변하여 여름에는 뜨겁기 한이 없고 또한 폭우도 자주 대하게 된다. 그 반면 더위가 한풀 꺽였나? 하고 생각하면 어느새 옷깃 속을 파고드는 찬 기운을 느끼게 된다. 봄과 가을이 명색이 무색하게 얼굴만 잠시 내밀었다가 사라지는 계절의 빠른 변화에 우리 모두들은 당황하게 된다. 그렇기에 에어콘으로 더위와 씨름 하다가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금방 난방 기구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다. 근래 며칠째 기온이 급강하를 하더니 오늘 일기예보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다고 한다. 가을이 온 것을 느끼자마자 금방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섬을 알려주는 냉기(冷氣) 때문에 근래 우리의 삶의 여유가 점차로 없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진다.

도로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의 아름다운 자태에 삶의 신비를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예전의 가을이 그리워진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고 외로움의 계절이기에 떨어진 낙엽과 노란 은행잎으로 채색된 보도 불럭과 고궁을 걸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사색에 빠져들을 수 있었던 낭만이 그리워진다. 보도와 고궁을 걸으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과 간단한 눈웃음을 교환 하면 서로의 마음들이 교감할 수 있었던 지난날들의 낭만이 새삼 그리워진다. 모두가 시인이 되고 문인(文人) 이 되게 하였던 젊은 시절의 가을에 대한 향수(鄕愁)를 갖는 것이 사치일까? 밤을 지새우며 읽었던 소설속의 남녀 주인공들이 사랑하며 나누었던 달콤한 언어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해 주고 싶어 했던 소박한 꿈을 간직하고 살아 왔던 지난 청춘에 대한 미련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계절이 가을이다.

오곡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는 농민들의 구슬땀 속에서 피어나는 환한 웃음에 자신의 마음도 풍요로워져 닫고 있었던 마음의 창을 열고 아름다운 미소를 타인에게 보낼 수 있는 가을.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주저없이 배낭을 챙겨 집을 나섰고, 목적지도 없이 발길 가는대로 헤매고 다녔던 지난 날. 새로운 인연

을 찾아보려는 마음도 없이 공허한 가슴을 안고 길을 떠났지만, 여행길에서 만난 외지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훈훈한 인심을 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의 소중함을 반추 해 볼 수 있었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아련히 느껴진다. 세월은 유수(流水)같이 흐른다는 말처럼 지난 날 존경하는 스승과 선배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며 인생의 지혜를 배웠던 그 시절은 어느새 가벼렸고 나에게는 중요한 멘토였던 분들의 자취를 찾으며 그리워하게 되는 계절이 또한 가을이다.

그러나 가을이란 계절은 양면성을 갖고 우리를 대한다.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수확의 계절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또 한 한해 의 끝 마무리를 지어야 시기가 왔음을 알려주는 회색의 계절이기에 받아드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언젠가는 떠나야 만 할 우리의 삶을 알려주는 계절이 가을이다. 그렇기에 황혼의 나이에 접어들면 더욱 더 외로워지는 계절이 가을이다. 특히 삶의 본질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온 경우에는 공허(空虛)함으로 채워진 부레위에 떠있게 되어 불안정한 황혼을 마지하게 된다. 쇠락해져가는 육체를 끌고 가면서 공허한 정신세계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을이 주는 의미는 일면 잔인한 면도 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깨우쳐 주는 가을이 일면 야속스럽기도 해진다. 단원 김홍도 의 걸작인 〈추성부도〉에서 노선비와 동자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노 선비는 가을이 왔음을 알고 한숨과 탄식을 내 뱉지 않았던가? 인생의 황혼이 이미 와 있음을 미쳐 알아채지 못하고, 삶의 고뇌와 번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우둔함을 책망하는 노 선비의 얼굴 표정은 나의 자화상을 보는 느낌이다.

거리의 가로수들이 점차 붉고 노랗게 변신을 시작한다. 이런 변신이 마무리를 지우면 올해의 마지막인 종착역인 겨울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음습하고 차가운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죽음과 상통한다. 만일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게 된다면 누가 죽음을 향해 달려 갈 것인가?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은 본능적이기에 황혼기에 접어들면 무의식적으로 겨울을 피하려 한다. 그렇기에 점차 짧아지는 가을에 강한 미련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우리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을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인지 지난 시절의 가을을 회상하면서 떠나가고 있는 가을밤에, 브람스의 현악 6중주 곡 과 차이코프스키의 가을의 노래에서 울려 나오는 애잔한 멜로디에 지친 영혼을 달래며 어둠이 깔려오는 저녁 창가에 서서 가을의 향취를 찾아 보려고 야경(夜景)을 바라본다.